

## 문래동 사용하기 04

그 공간의 사람과 사물들 01 (문래동 철공장 및 가게)

문래동 철공소 탐방기

## 그 공간의 사람과 사물들 01

김중범

이 작업은 같은 문래동에서 작업실을 하고 있는 건축가 최순복씨와 문래동 스튜디오 모임에서 만나 주변을 답사하고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시작한 작업이다. 창작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길위에서 발견하고 배워보자는 방향이었다.

평소 일본의 고현학과 노상관찰학에서 엮본 것들이 길위에서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우치자와 준코씨의 그림을 보며 그림이 가진 힘을 느껴 되도록 그림으로 정리를 해 보고 싶었다.

답사는 봄부터 여름까지 진행하였고 아직도 둘러보지 못한 문래동의 공장들이 많다. 바쁜 와중에 불쑥 찾아가 카메라와 스케치북을 들이댄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분들이 없다면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추운 봄날과 어지러운 한 여름에 혼자였다면 시작조차 힘들 작업이었지만 최순복씨와의 약속 때문에 꾸준히 답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번에 만든 소책자는 '문래동 사용하기' 워크샵을 통해 작은 분량이나마 정리해 본 결과물이다. 다른 참여 작가분들과 여러차례 세미나를 통하여 넓은 시각으로 문래동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문화사회연구소와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에 감사드린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과 사물들에 경의와 존경을 담아.

철판을 접어 박스를 만드는 곳

## 우성판금

금속을 깎아 기계를 제작하는 곳

## 국제정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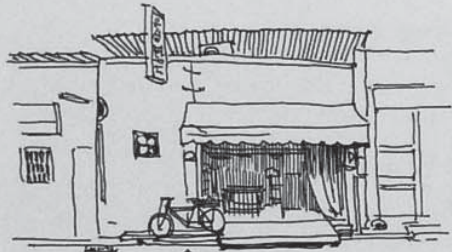
주물의 원형을 만드는 곳

## 대동목형

이름없이 공장 틈새에 자리잡은

## 이름없는 구멍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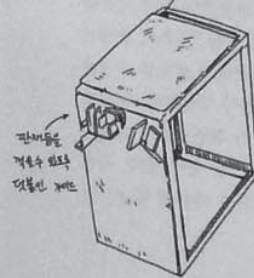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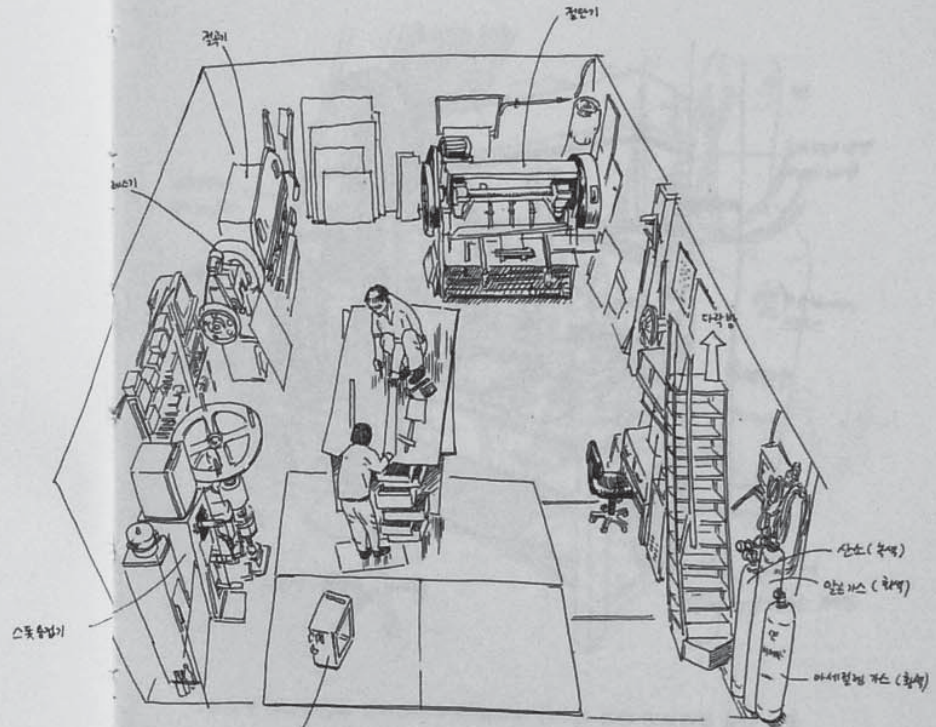
철판을 접어 박스를 만드는 곳  
우성판금



우성판금 사경  
 (상호채운 밖에 종업원  
 (대기) 여러 명서...)  
 여러 사람이 종업원기 종업원

판금작업은 얇은 철판을 접는 제작공정을 담당하는 곳이다. 컴퓨터와 레이저 절단기를 이용하여 순식 간에 도면대로 철판이 잘라져 나오는 요즘에도, 그것을 구부리고 접어서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은 판금작업장에서 사람손을 거치는 수 밖에 없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기계는 절단기와 절곡기이다. 절단기는 철판을 자르는 작업을, 절곡기는 구부리는 작업을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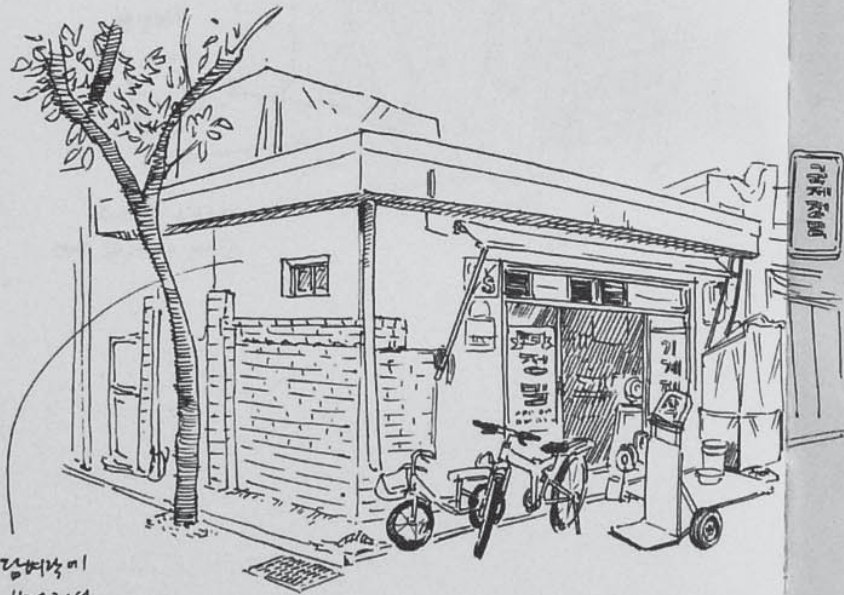
종이로 복잡한 박스를 접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리 얇은 두께라도 접을 때는 그 두께로 인해서 미묘한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것 만큼을 가감하여 정해진 치수의 형태를 만드는 작업은 간단치가 않다.



이 작은 박스 형태는 작업 보조대라는 것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옆에 붙어있는 철판 조각들은 도무지 용도를 알 수 없어 물어보았다. 작업 중에 철판 등을 쉽게 찍을 수 있도록 붙여 놓은 가이드라고 한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확실히 존재감이 남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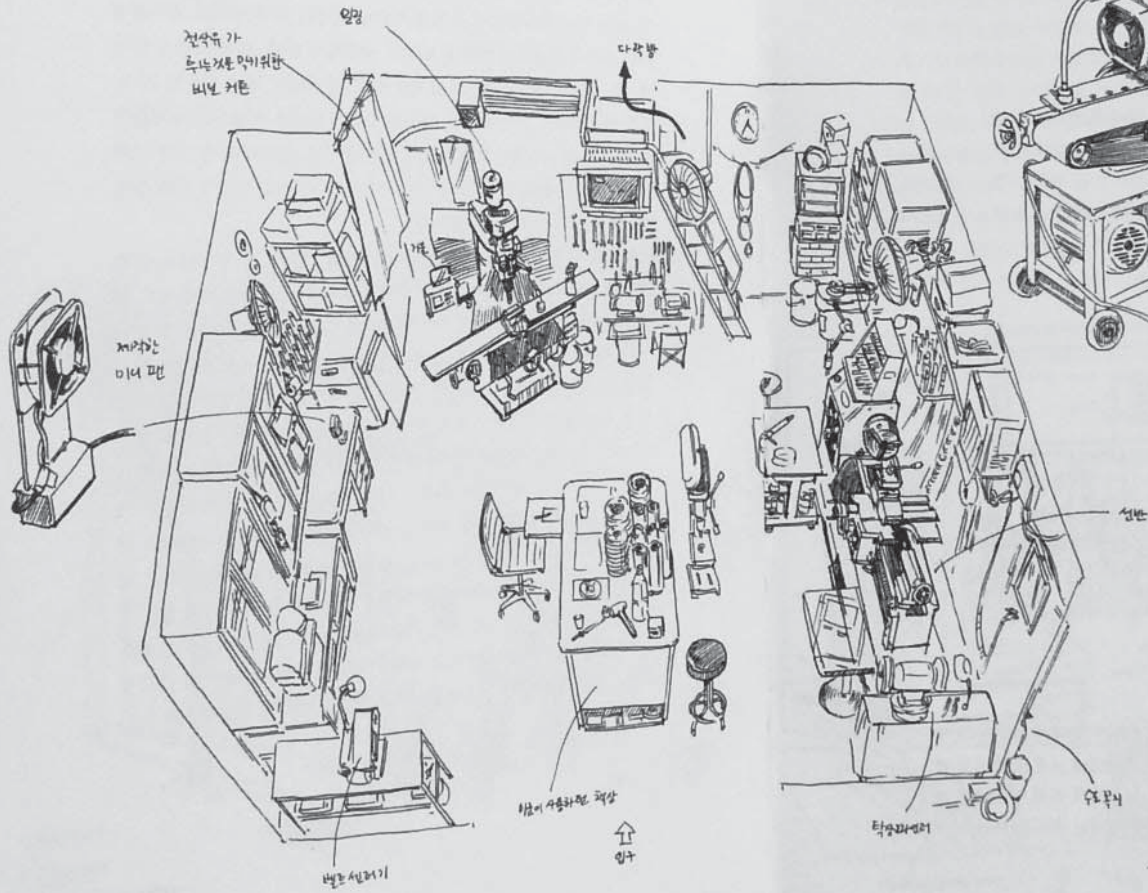
금속을 깎아 기계를 제작하는 곳  
국제정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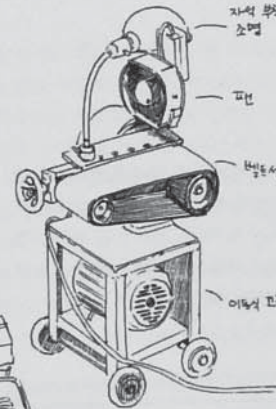
김희영이  
반쯤은 그려서  
임은은 학생이 완성했다

상호에 이미 '정밀'이라는 단어가 있는 만큼 긴장되는 장소이다. 원자재를 가공하여 기계를 만드는 과정은 그만큼 복잡하고 정교함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단순 부품가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작과정 중간 중간에 해결사의 역할을 도맡아 진행해야 한다. 때에 따라선 도면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말로만 설명을 듣고 풀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해결사답게 이곳엔 유독 제작되거나 기성품을 변형시킨 장치물이 풍부하다. 팬과 조명이 함께 부착된 밸트센터기, 필요에 맞게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즈의 팬, 심지어 수돗가의 물의 흐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금속 가공 기계의 기본이자 좌칭용 우백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선반과 밀링이다. 선반은 수평의 회전축에 가공물을 물려놓고 회전시킨 상태에서 절삭공구를 이송 시키며 회전체의 단면을 가공하는 공작 기계이다. 흡사 도자기를 빚을 때 물레에 흙을 돌리며 회전체의 모양을 잡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이 선반이 참으로 신기한 것이 회전체의 외경과 내경을 깎는 것은 물론이고 응용 방식에 따라 나사산을 깎아낼 수도 있는 만능의 기계이다. 밀링은 수직방향의 절삭공구를 회전시키는 상태에서 가공물을 그 아래 놓고 상하 좌우로 이송 시키며 가공하는 기계이다. 가공물에 흠을 파거나 외형을 만들고 절삭공구 선택에 따라 나사산을 내거나 흠의 모양을 달리할 수 있다. 요즘은 컴퓨터로 제어되는 CNC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곳의 수동 기계들이 돌아 가는 모습은 역시 긴장감이 넘친다. 그런 곳의 기술자들일 수록 생산연도를 가능하게 어려울만큼 깨끗하게 정비하고 선반과 밀링을 가리켜 아들 딸 대학교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일등공신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원래 고정형인 벨트샌더기를 이동형으로 개조하면서 동시에 조명과 송풍용 팬을 달았다. 특히 금속을 갈아낼 경우엔 공장 내부에 금속가루가 많이 쌓여 좋지 않기 때문에 실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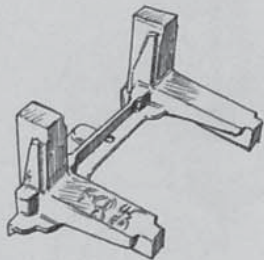


문래동 공장의 대부분이 물건을 밖으로 낸다. 공장 내부에 수돗가를 설치하면 공간을 차지하고 물기가 실내에 번지기 때문. 그래서 이곳처럼 그 수도꼭지와 호스를 고정하는 방식이 점점마다 독특하다. 물길이 이단계로 흐르는 것에 주의.



### 주물의 원형을 만드는곳 대동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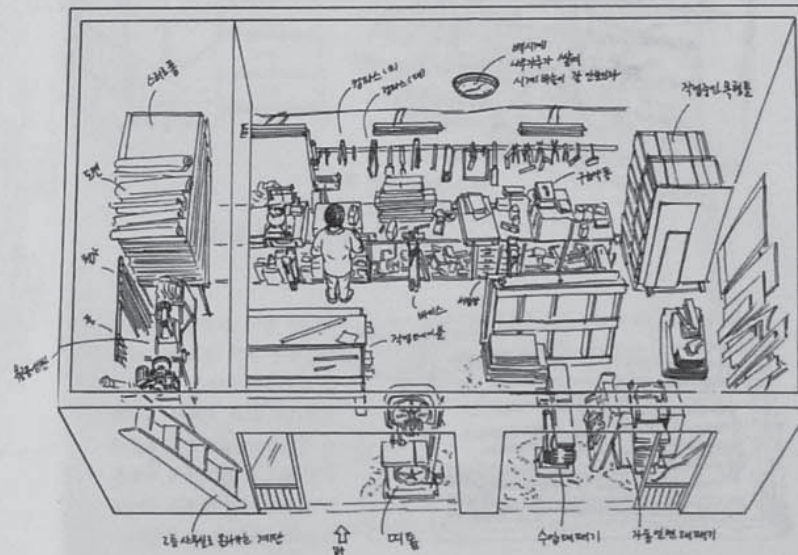
영등포에서 신도림역으로 이어지는 철길 옆에 톱밥가루를 내 뿜으려 자리잡고 있는 이곳. 얼핏 보면 일반 목공소 같지만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가구와는 거리가 먼 것들을 만든다. 바로 주물을 떠내기 위한 원형을 제작하는 곳이다. 그 주된 재료로 나무를 사용하여 '목형'이라 부른다.



이것이 이곳에서 만드는 목형의 하나이다. 나무를 붙이고 깎고 다듬어서 실제 주물에서 생산될 형태는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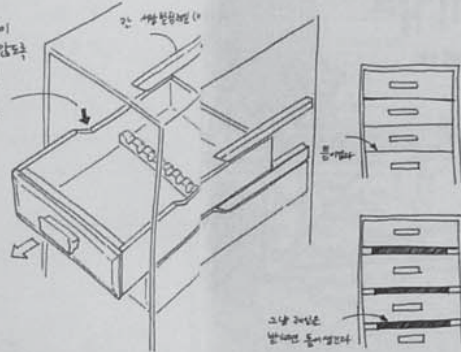
목공소 처럼 보이는 이곳을 들어가 보면 기계들은 분명 목공소의 그것들인데 가구는 없고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알수 없는 것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연장들이 곳곳에 걸려있다. 더욱더 신비로운 점은 그 연장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옛말에 '서투른 목수가 연장 탓한다'는 말이 있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좀 하는 목수들은 연장이 부실하면 아예작업을 안하고 만든다'는 표현이 좀더 설득력이 있다.

이곳은 어떤 형태든 만들어 내야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연장 맛을 하기 전에 필요한 연장을 준비하다 보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연장들이 풍부하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페이지에 담기에는 무리였나 보다.





서랍은 사이  
들어갈때 압착  
경우사기  
내려간  
서랍등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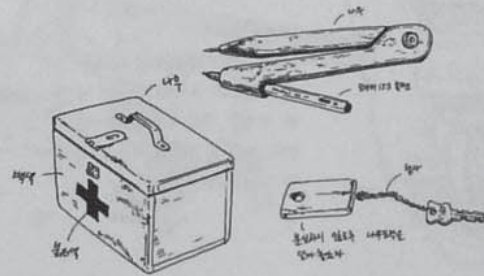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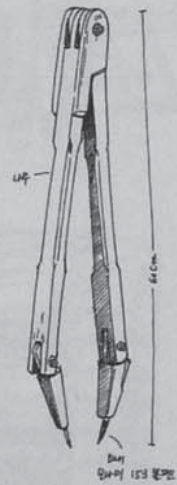
작업대 밑에 있는  
필수품만 서랍장에  
수납중류의 끝나 대패가 들어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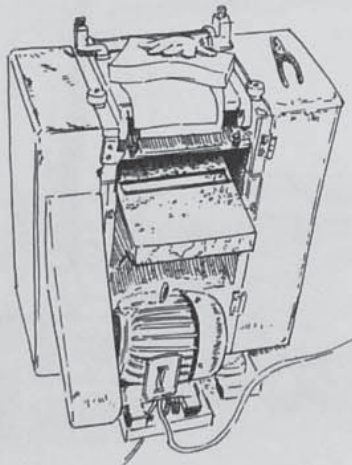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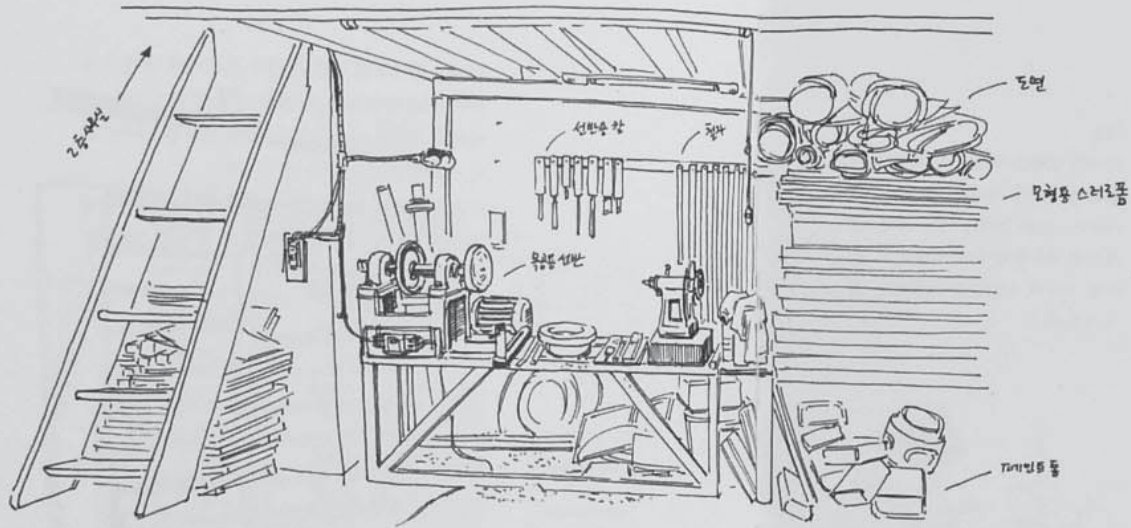


작업대 밑에 놓여있는 두개의  
서랍장이 무척 궁금하여 허락  
을 받고 열어보았다. 역시나 수  
십가지의 끌과 대패가 가지런  
히 정리되어 있다 크고 넓은 것  
부터 좁고 작은 것까지 이것들  
만 있으면 어떤 형태든 깎아낼  
것 같은 자신감을 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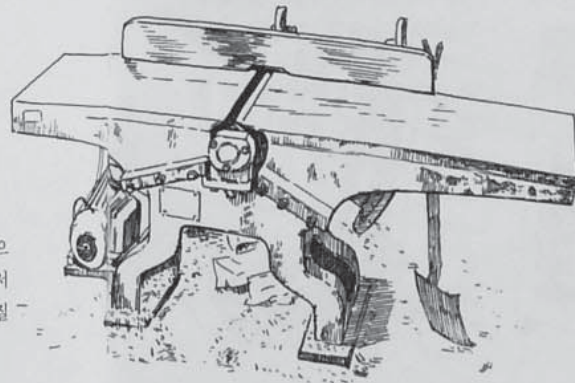
서랍을 뽑아보면 서랍 측면이 경사지게 내져간 부  
분이 눈에 들어왔다. 이걸 도대체 무언가 싶어 열  
어보니 서랍을 받치고 있는 턱의 자리를 내어주도  
록 서랍의 측면을 잘라 낸 것이다.  
요즘엔 철재로 된 레일을 주로 사용하지만 나무만  
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기능적인 서랍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작하여 사용하는 대표  
작인 연필이 바로 컴퍼스이다.  
큰 것은 60cm가량 되는 것부터  
작게는 손바닥 만한 것까지 종  
류별로 다양하다. 모두 나무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특이한 점  
은 연필이 아닌 모나미 153볼펜  
을 이용한다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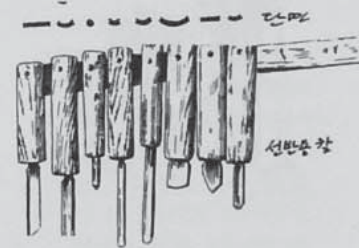
자동일면대패기  
(SINGLE SURFACE PLANER)  
길이 방향의 목재를 입구에 넣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한쪽 면을 일정한 두께로 대패질해 주는 기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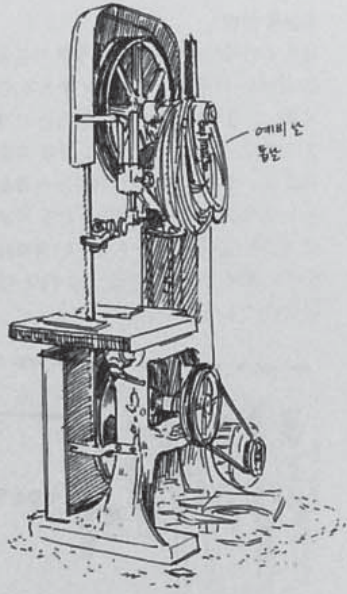


수입대패기  
(HAND FEED PLANER)  
기계의 측면 가이드에 나무를 대고 손으로 밀어주면 바닥면 쪽을 일정하게 깎아주는 기계이다. 한쪽 면의 두께를 줄이거나 직각을 잡기 위해 사용한다. 날이 노출되어 있는만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기계이다.

목공용 선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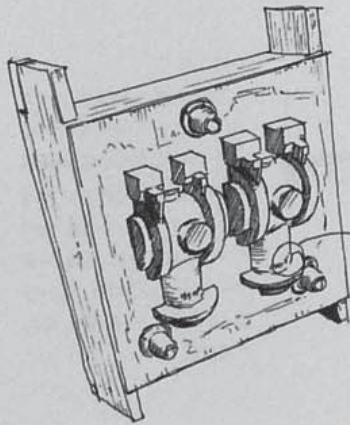
보통 선반이라면 회전축에 원형의 가공물을 물려서 회전시킨 상태에서 회전의 수직축으로 절삭공구를 대어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금속공작용 선반은 보다 육중하고 정교하게 생겼지만 여기있는 목공용은 단순해 보인다. 선반 앞에는 단면 가공에 필요한 끌들이 필요에 맞도록 제작된 것들이 걸려 있다. 이곳에는 2층 다락 아래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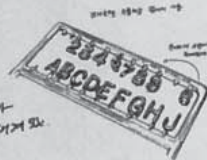


**띠톱**  
 커다란 원형의 띠톱날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목재를 재단하는 기기이다. 큰판 보다는 작은 판을 조목 조목 자르는데 주로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서 곡선면을 재단하는 데도 사용한다.

**목형에 부착하는 글자조각**  
 주물에서 복제되어 나오는 결과물에 부품번호나 모델명이 양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경우 이와 같은 글자조각을 사용한다. 흡사 프라모델처럼 생긴 것인데 필요한 글자들을 떼어서 목형에 붙인다.



부품번호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은 양각 조각



**목재로 만든 바이스**  
 보통은 금속재질로 된 바이스를 사용하지만 기성품들은 다양한 형태의 제작물을 대응하기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바이스는 나무 각재와 나사산이 있는 축을 연결하여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다. 주목해서 봐야할 점은 하단부의 나무가 고정된 것이 아닌 공작물의 크기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것.

나무로 만들어진 바이스  
 각판목이나 용접용 용접기  
 각판목이나

## 이름없이 공장 틈새에 자리잡은 이름없는 구멍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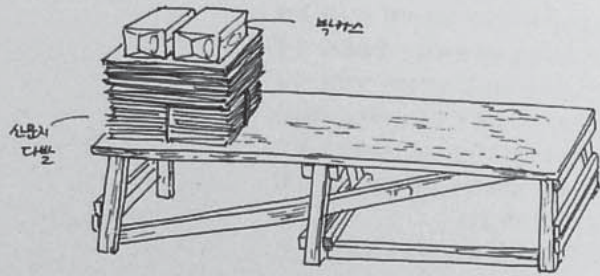
영등포에서 신도림역으로 이어지는 철길 옆에 조그마한 문 사이로 느긋한 주인과 상품이 들여다 보이는 곳.



인적이 드문 이곳에 무엇을 팔고 어떤 손님이 울까 궁금하기만 하다. 진열대에 놓여있는 상품들도 가게의 주인도 느긋하기만 하다. 가게 앞은 철길이 지나가고 높은 콘크리트담장이 쳐져 있어 이곳은 막다른 골목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지나가는 행인도 적고 물건을 이것 저것 진열해 놓고 하나라도 더 팔수 있는 그런 곳과는 거리가 멀다.

입구에 표시된 내용을 보면 '행광등,담배,문구,건전지,잡화 일체' 라고 되어 있다. 이곳을 찾는 손님은 대부분 주변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다. 담배를 사거나 간단한 메모지나 볼펜 등을 구입하는 정도이다.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장소인 만큼 박카스가 비중있게 진열되어 있다. 우측 벽면에는 파리채와 고무장갑, 그리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베드민턴 라켓이 눈에 들어온다. 예전엔 공장 사람들이 가게 앞 골목에서 쉬는 시간에 베드민턴을 자주 쳤다고 한다. 안쪽 깊숙한 공간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유리로 된 진열장에는 각종 문구류와 양식지가 들어있다. 나중에 사진을 보고 알게된 것이지만 진열장 위에는 나란히 상패가 있었다. 하나는 국가유공자 증서, 다른 하나는 참전유공자 증서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하사한 증서다.





좁다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좌측엔 냉장고와 진열장이 있고 안쪽엔 주인이 앉아서 쉬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2층 다락에 보관하고 있다. 사다리는 진열상 사이에 집어넣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

